

“대선 투표율 올리자”…자치구, 이색 투표참여 홍보 눈길

북구, 참여독려 대형 현수막 게시
동구, 챗봇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
광산구, 새내기 유권자 독려 주력
선거당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광주지역 자치구들이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11일 지역 자치구에 따르면 북구는 현장 홍보 강화, 투표율 저조 지역 집중 홍보, 북구 SNS 활용 등 종합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투표 당일인 다음 달 3일까지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9일 구청 청사 외벽에 ‘민주주의는 투표로 완성됩니다’라는 투표 독려 문구를 비롯해 (사전)투표 일자와 시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이번 주까지 주민들이 자주 찾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생활SOC시설 10개소에 관련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북구 전역을 도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도 안내 현수막을 달아 주민들과 밀접한 거리에서 투표 참여를 홍보하고, 지역 인구의 약 70%가 거주 중인 공동주택 431개소에 사전 및 본투표 전일과 당일 각 2회씩 안내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 투표에 참여가 저조했던 지역의 경우 차량 가두방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보다 많은 주민이 투표소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

이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주민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이뤄진다.

북구에서 운영 중인 8개의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카드 뉴스, 숏폼 등 투표 홍보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사전)투표일과 투표소 안내 링크가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한다.

북구는 또 투표 당일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이는 북구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건국동과 석곡동 내 투표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투표율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동초등학교, 광주호수생태원 지구센터 등을 거점으로 하는 맞춤형 노선을 따라 투표소별로 셔틀버스가 왕복 2~5회 운행될 예정이다.

동구는 1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선거 홍보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 자생단체와 유관기관, 동구 SNS 서포터즈, 마을활동가 등과 함께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온·오프라인에서 펼칠 계획이다.

북구 전역을 도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도 안내 현수막을 달아 주민들과 밀접한 거리에서 투표 참여를 홍보하고, 지역 인구의 약 70%가 거주 중인 공동주택 431개소에 사전 및 본투표 전일과 당일 각 2회씩 안내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다.

북구 전역을 도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도 안내 현수막을 달아 주민들과 밀접한 거리에서 투표 참여를 홍보하고, 지역 인구의 약 70%가 거주 중인 공동주택 431개소에 사전 및 본투표 전일과 당일 각 2회씩 안내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다.



11일 광주 조선훈 장미원에서 열린 광주시선관위 투표참여 캠페인에서 시민들이 가상 투표를 하며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한다.

사전 선거일인 오는 29~30일과 선거 당일인 다음 달 3일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선거일에는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이 투표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이동 편의도 제공한다.

광산구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맞춤형 홍보에 주

력한다.

지역 고등학교, 대학교 등과 협력해 온오프라인으로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교통 약자를 위한 투표 지원책도 마련된다.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의 고령층, 장애인 유권자들이 원활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이동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산구 지역 상인들도 투표 참여율 높이기 위해 힘을 보탠다. 지역 상인회와 개별 상점에서는 투표 참여를 인증한 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 시민 여러분의 한 표가 더 나은 세상,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선거를 시민 여러분의 축제로 완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환준·이수민 기자

광주교육청, 학생들 꿈·끼 발산 ‘야외버스킹’

5개 자치구서 총 57팀 참가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지역 5개 자치구에서 총 57팀, 약 368명이 참여하는 ‘제3회 학생 야외버스킹’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학생 야외버스킹’은 지난 2023년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시작된 학생 참여 예술 활동 프로그램이다.

광주 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023년 38개팀, 2024년 43개팀이 참여해 광주 교육 가족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학생 야외버스킹’은 광주 5개 자치구별로 각 한차례씩 총 5번 공연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21일 오후 5시 서구 유스퀘어 야외광장 △24일 오후 3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야외공연장 △28일 오후 5시 북구 비엔날레 야외광장 △31일 오후 3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등에서 공연이 진행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누구나 즐기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도 학생 참여 중심의 학생 주도 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끼와 재능으로 가득 채워질 모든 무대에 광주 교육가족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남구, 사직동 통기타 거리 ‘X·MZ세대 골목상권’ 육성

야외버스킹 장 조성·청년 점포 유치

광주남구가 대한민국 포크 음악의 성지인 사직동 통기타 거리를 X세대와 MZ세대를 아우르는 골목상권으로 육성한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가 주관한 ‘지역 특화 예비 우수상권 발굴·육성 사업’ 공모에서 사직동 통기타 거리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남구는 이번 선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시비와 구비 등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해 음악 중심의 골목상권 성공모델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 사업은 통기타 거리 상인들과 인근에 거주

하는 주민들이 공동협업체를 구성한 뒤 X세대와 MZ세대 음악인 간 상생 발전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올 연말 오픈을 목표로 이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시간우체국 건립과 다양한 이야기를 선보이는 살롱 드 사직 프로젝트와 맞물려 사직동 관광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남구는 통기타 거리에 X세대와 MZ세대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야외 버스킹 공연장을 만들고, 평일과 주말에도 버스킹을 상시로 이어갈 계획이다.

통기타 거리 음악협회 소속 가수들과 통기타

그룹, 아마추어 동호회 등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비어있는 상가 2곳을 청년 점포로 유치해 연간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광주를 찾는 타지인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사직동 통기타 거리 대학생 서포터즈도 모집한다.

이와 함께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협업체를 구성해 통기타 거리 취급 메뉴의 가격 인하와 고객 유입을 위한 특성과 사업을 마련하고, 야간 경관조명 개선을 비롯해 통기타 거리 디지털 마케팅, 스탬프 투어 앱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전라남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FACIT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인증제품 : 나이스3A, DE202-AW, DE202-AB 농기계 보조사업 기종, 농협용차, 농기계 보험, 면허증/번호판 없이 탑승가능



나이스 3A
(오토바이 형식 핸들)



DE202-AB
(오토바이 형식 핸들)



DE202-AW
(자동차 형식 핸들)



문의전화 061-352-3010

본사공장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내)

제품정보 대풍이브이자동차 를 YouTube / NAVER 에 검색해 주세요!!